

### 진도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20만원 지원 만 80세까지 확대 지원... 영화관·식당 등 사용 가능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 이상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가 오는 16일 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희·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꾸쳐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문화생활에 다소 소외됐던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 신안, 청소년 주민참여위원 예산학교 운영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위한 예산학교 개최

신안군은 청소년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일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안군 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군은 올해부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받아 청소년들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청소년들이 성장해서도 신안군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재영 기자

### 목포 평화광장서 즐기는 클래식

'미래문화 현악합주단' 오는 10일 버스킹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목포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미래문화 현악합주단'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선 '파란디아', '꽃의 왈츠', '진도아리랑' 등 30여명의 합주단 단원들이 준비한 클래식 현악합주와 분위기를 다채롭게 해줄 국악과 가요공연이 함께 한다.

'미래문화 현악합주단'에서는 목포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악기 연주 교육과 클래식, 국악 및 가요 공연을 진행하며, 목포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피자락실합실 스튜디오 스페이스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3일 노적봉 예술공원 등 목포시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 영암읍 일대 '365 생활권' 구축사업 속도

####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사업비 429억 확보

#### 지역균형발전 기반마련·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추진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4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영암읍 등 '365 생활권'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365 생활권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365 생활권'은 30분 내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3, 60분 내 문

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6,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5)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암군은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참여했다.

이 계획에는 영암읍 농촌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마을 배움나눔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읍 농촌생활권에 5년간 국비 300억원을 포함, 42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30억, 덕진·신북·금정·시종·도포·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30억, 기타 역량강화사업 69억 등이다.

앞서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근

거를 마련했다.

이어 읍·면별 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생활권추진위원회와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 등도 거쳐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분위기 확산에도 공을 들였다.

영암군은 공모에 제출한 계획의 보완·승인 절차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다"면서 "농촌협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행복한 영암의 기초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완도,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박차

#### 시장 상권 활성화·집수리·쉼터 조성 등 주거·생활환경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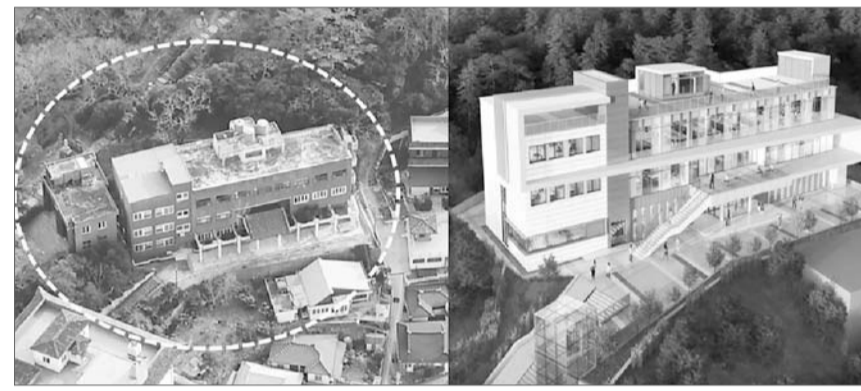
완도군은 7일 완도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를 오양리와 서성리에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옛 문화원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한 뒤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134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는 완도를 중앙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중심 상권 활성화와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23곳 빈집 철거 3곳 등



을 마무리했으며 소공원과 주차장은 태양광과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중앙시장은 A동 철거 이후 통합 공공건물을 신축해 창업 활동을 원하는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한다.

시장의 주요 상품을 활용한 먹거리

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음식점도 조성한다.

완도를 군내리 옛 대중의원 부지에는 벤치와 정자를 설치하고 돌길과 휴길 등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힐링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완도=이두식 기자

#### 강진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다산안전대상 수상 영예

농어촌개발추진단(강진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하 센터)이 지난 2일 전남도가 주최한 제5회 다산안전대상에서 민간단체부문 안전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은 다산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토대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 및 적극 대응 등을 통해 모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주는 포상이다.

이번 다산안전대상은 공공기관·단체, 개인, 시군 부문으로 나뉘어 각 3개씩 총 9개 상을 수여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선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민간단체는 강진군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센터가 수상했다. 센터는 그동안 지역민 216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지도사 교육을 완료했으며, 심정지 사고 예방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개인 부문은 어려운 계층에게 재난 사고 예방 교육을 펼친 김해라 회장(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 조성태 과장(포스코 광양제철), 하강운 교수(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가 각각 차지했다.

강진원 군수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는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면서 "올 여름 수해·열파·노후화 등에 따른 폭우와 폭염, 산사태, 주택 침수 등으로부터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해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선정

#### 2024년지구 북평 영전마을·송지 마봉마을, 사업비 44억원 확보

해남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북평면 영전마을, 송지면 마봉마을 2개소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북평 영전, 송지 마봉마을은 2024년부터 4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배수로·마을안

길·마을공동시설 정비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위생안전 기반 시설 정비사업 ▲빈집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노후 집수리 등 주택정비 사업 ▲담장정비·주민쉼터조성 등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평 영전에는 사업비 21억원, 송지 마봉에는 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

업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정비,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해 북평 신흥(사업비 22억원), 계곡 둔주(사업비 19억원)에 이어 2년연속 2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건강의섬 오돈

청정완도로

전북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북 홍보대사 영탁